


# 매길로이, 2연패... '오거스타의 전설'

마스터스 우승... 상금 66억 원  
그린재킷 두 벌... 통산 30승 대업  
니클라우스·팔도·우즈에 이어  
24년 만에 새 역사 이룬 주인공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사진)가 역대 4번째로 마스터스 토너먼트 2연패를 달성했다.

세계랭킹 2위 매길로이는 13일(한국 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565야드)에서 열린 제90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225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1언더파 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적어낸 매길로이는 세계랭킹 1위인 스킵피 세플러(11언더파 277타-미국)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 상금 450만 달러를 거머쥐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그린 재킷을 입은 매길로이는 잭 니클라우스(1965~1966년-미국), 닉 팔도(1989~1990년-잉글랜드), 타이거 우즈(2001~2002년-미국)에 이어 역대 4번째 마스터스 2연패 주인공이 됐다.

매길로이는 2007년 프로 데뷔 후 유독 마스터스와 인연을 맺지 못하다가 지난해 17번째 도전 만에 정상에 오르며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카리어 그랜드 슬램'을 역대 6번째로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우승으로 매길로이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승과 통산 30승도



함께 기록했다. 매길로이는 이번 대회를 손쉽게 우승하는 듯했다. 2라운드까지 중간 합계 12언더파 132타를 쳐 공동 2위 그룹을 6타 차로 앞섰다. 마스터스 역사상 36을 기준 최다 격차 선두였다. 그러나 매길로이는 12일

로워서 대회 승부처로 꼽힌다. 매길로이는 여기서 2연패 도전에 발목을 잡히는 듯했다. 그러나 매길로이는 13일 4라운드 '아멘 코너'에서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4번 홀(파3)에서 스리 퍼트를 하면서 더블 보기를 범했고, 6번 홀(파3)에선 티샷이 관중석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 한 타를 더 잃으면서 선두 자리를 영에게 내줬다.

그러나 매길로이는 7번 홀(파4)과 8번 홀(파5)에서 정확한 아이언샷으로 연속 버디를 잡으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승부처는 '아멘 코너'였다. 전날 11번 홀~13번 홀에서 무너졌던 매길로이는 악몽을 반복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더블보기를 기록했던 11번 홀에서 안전하게 코스 공략에 나서 파 세이브에 성공했다. 12번 홀(파3)에선 티샷을 홀 2.13m 옆에 붙인 뒤 버디 퍼트를 성공했다. 그리고 13번 홀에서 다시 버디를 낚으면서 우승의 기쁨을 마련했다.

매길로이는 먼저 라운드를 마친 2위 세플러와 두 타 차를 보였고, 이후 파 세이브 행진을 이어갔다. 마지막 고비는 18번 홀(파4)이었다.

두 타 차 선두를 달리던 매길로이는 티샷이 오른쪽으로 휘면서 공이 숲 속으로 떨어졌다. 두 번째 샷은 나무 사이를 잘 통과했으나, 그 앞 벙커에 떨어졌지만 침착하게 세 번째 샷으로 벙커 탈출에 성공했고, 3.66m 거리에서 시도한 파 퍼트가 홀 바로 옆에 붙었다.

매길로이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밝게 웃었고 보기 퍼트를 성공하며 챔피언의 순간을 만끽했다. 글 사진-연합뉴스

## LG·삼성, 주말 달구벌 격돌 상위권 판도가 '분수령'

양팀 에이스 톨허스트·원태인  
막강한 구위 대결도 큰 볼거리

### 프로야구 전망대



2026시즌 초반 KBO 리그에서 상위권으로 치고 나선 '3강'은 LG 트윈스와 kt wiz,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다.

개막하기 전부터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세 팀은 탄탄한 전력을 앞세워 순위표 상단을 점령했다.

특히 개막 3연패로 불안하게 출발했던 LG, 개막 2연전을 모두 내줬던 삼성은 최근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준 팀이다. LG는 지난주 NC 다이노스와 SSG 랜더스를 만나 6경기를 쓸어 담는 등 최근 7연승을 달렸다.

이들을 반 경기 차로 따라가는 삼성도 NC와 주말 3연전을 싸붙이었고, 최근 10경기 8승 2패로 기세가 거세다. 17일부터 19일까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LG와 삼성의 주말 3연전은 초반 상위권 구도를 판가름할 중요한 일전이다.

최근 2년 동안 두 팀의 상대 전적은 16승 1무 15패로 LG의 근소 우위다. LG는 에이스 앤더스 톨허스트가 구위를 회복했고, 삼성은 '푸른 피의 에이스' 원태인이 12일 무사히 복귀전을 치른 터라 두 팀은 최강의 전력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주중에는 나란히 시즌 9승을 거둔 LG와 kt가 '10승 선점 팀' 타이틀을 놓고 경쟁한다.

LG는 서울 잠실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 kt는 창원NC파크에서 NC와 주중 3연전을 치른다.

kt는 2021년 9승에서 2연패 해 10승 선점을 놓쳤으나 그해 창단 첫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두 팀의 시즌 10승 사냥을 막아야 할 롯데 자이언츠와 NC는 승리가 간절 한 팀이다.

롯데는 개막 2연승 뒤 7연패로 급추락하다가 지난주 3승 3패로 간신히 낙하산을 폈다.

NC는 지난 4일까지 6승 1패로 공동 1위였다가 6연패에 빠졌다.

NC와 비슷하게 7승 1패에서 지난주를 시작했던 SSG 랜더스는 5연패를 당했다. SSG는 주중 두산 베어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3연전을 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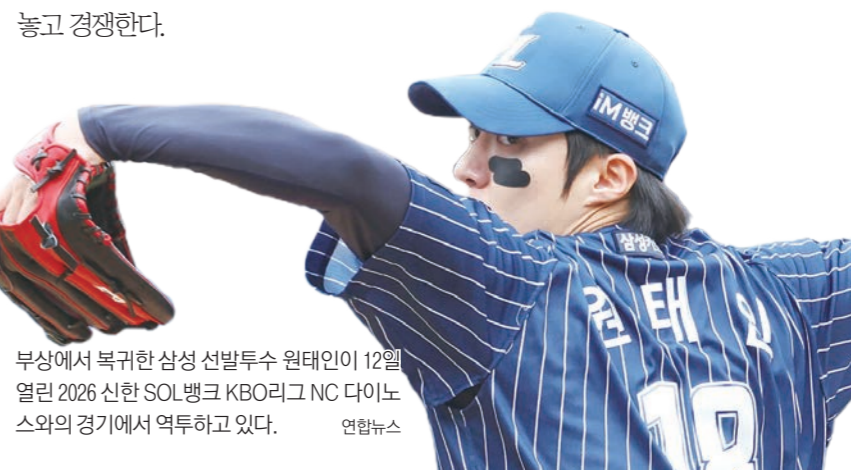
한화 이글스와 치른 지난 주말 방문 3연전을 모두 쓸어 담고 하위권에서 벗어난 KIA 타이거즈는 광주로 키움 히어로즈를 불러들여 3연전을 벌인다.

현재 6승 7패인 KIA의 최소 목표는 키움과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둬 승률 5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삼성엔 대전에서 한화와 주중 3연전을 벌인다. 현재 통산 2599안타를 친 삼성 최형우는 한화를 상대로 프로야구 역대 두 번째 2600안타를 정조준한다.

통산 최다 안타 타이틀을 보유한 손아섭(한화-2618안타)은 현재 퓨처스(2군) 리그에서 뛰는 터라 최형우와 간격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

주말에는 LG-삼성, kt-두산, 창원(SSG-NC), 부산(한화-롯데), 수원(키움-kt)에서 일전이 벌어진다.



부상에서 복귀한 삼성 선발투수 원태인이 12일 열린 2026 신한 SOL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대어' 허수봉 잡아라 프로배구男FA 시장 개장 16명 공시... 26일까지 협상



프로배구 남자부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막이 올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026년 남자부 FA 자격을 얻은 16명의 선수 명단을 13일 공시했다. FA로 풀린 선수들은 우선 협상 기간 없이 이날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 협상할 수 있다.

FA 영입 구단의 보호선수 제시는 27일 정오까지이며, 원소속구단의 보상선수 선택 마감은 30일 오후 6시까지다.

FA 보상 규정은 선수의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뉜다. 기본연봉 2억5000만 원 이상인 A그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팀에 전 시즌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5명) 이외의 선수 1명을 보상하거나 전 시즌 연봉의 300%를 이적료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상 방법의 결정권은 원소속팀이 갖는다. 기본연봉 1억 원~2억5000만 원 미만인 B그룹과 1억 원 미만인 C그룹 선수를 영입할 경우에는 보상선수 출혈 없이 각각 전 시즌 연봉의 300%, 150%의 이적료만 지급하면 된다.

이번 FA 시장에 나온 총 16명의 선수 중 구단별로는 우리카드가 박진우, 오재성, 이상현(이상 A그룹), 김영준(B그룹) 4명

으로 가장 많다. 이어 OK저축은행에서 정성현, 이민규, 박창성(이상 A그룹) 3명이 시장의 평가를 받는다.

대한항공 조재영(A그룹)과 유광우(B그룹), 현대캐피탈 황승빈과 허수봉(이상 A그룹), 한국전력 하승우(A그룹)와 장지원(B그룹), 삼성화재 이상욱과 김우진(이상 A그룹), KB손해보험 김도훈(C그룹)이 FA 자격을 취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 시즌 연봉 8억 원을 받은 허수봉은 이번 남자부 FA 시장 최대어로 꼽힌다. 원소속팀을 제외한 다른 팀이 그를 영입할 경우 이적료만 최대 24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과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제' 작가  
신경애 신간

# 연예인 Entertainers

-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

